

반성폭력 자료집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反성폭력 문화제 프로그램

528 성폭력강연회

여성에 대한 테러리즘
군사주의와 성폭력
강사: 여성해방연대 소란
장소: 2201강의실

528 성폭력거리전

일상과 전쟁의 데칼코마니
성폭력은 현재 진행 중
장소: 학내곳곳

529 성폭력영화제

시원한 맥주와 향긋한 차 즐기기 노천카페
늦은 4시 2차 민주광장

하구적 순결이데올로기여~떠나라! 反성폭력영화제
마돈나 진실혹은 대담
301.302
스위터
늦은 8시 30분 2차 민주광장

반성폭력 자료집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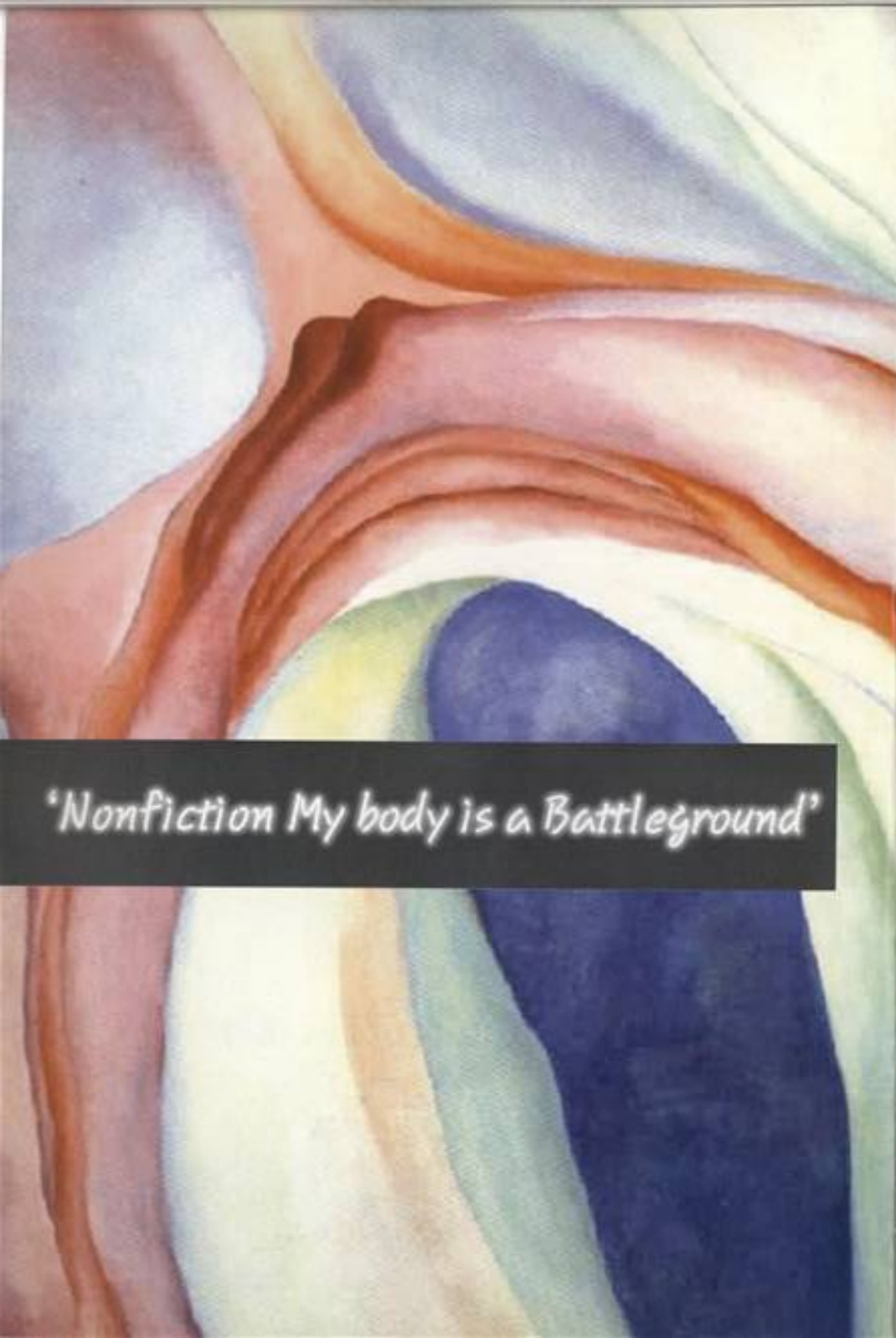
My body

is a

battleground

원복의 상상력, 금지의 실험 지우야

의혈중앙 17대 스/크/래/치 총여학생회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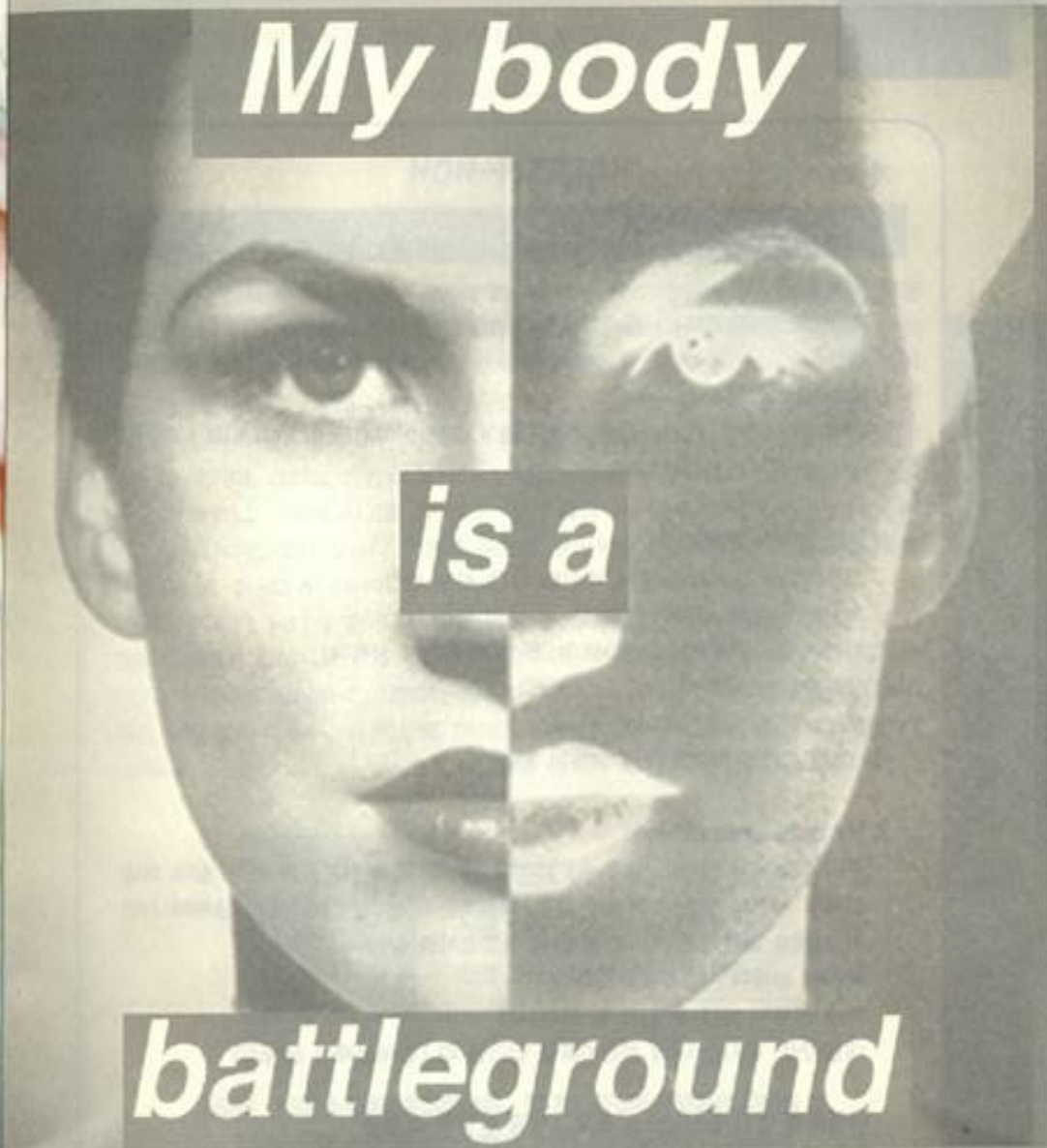
반성폭력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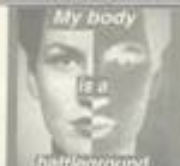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My body

is a

battleground





반성폭력 자료집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개 요

개 요

- 반성폭력 문화제 광고 페이지
- 여는 글
- 새내기 글
- 중앙대학교 흑석캠퍼스 총여학생회 연대글

1. Nonfiction

- 성폭력은 소설도, 가상현실도, 특정인물의 슬픈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이다.

(1) 일상에서의 성폭력

선후배간의 술자리 성폭력, 데이트 강간, 부부 강간,
사이버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성폭력적인 차어 문화, 남학생 '미스' 대회(환경형 성폭력)

(2) 전쟁에서의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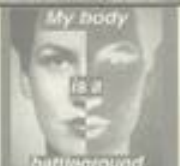
보스니아 강간캠프에 대해

(3) (컷 만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2. My Battleground+ing

-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과 그 해결과정을 통해, 실제 학내 성폭력 사건과 해결이 어떻게 접수, 해결되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과 신고절차를 알린다.
- 궁성민 성폭력 사건해결과정과 후기
- 학내 성폭력 발생 후 신고 및 처리과정
- 대응방법- 48시간 내에 강간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성폭력 상담소)

- 반성폭력 영화제 'Nonfiction' 프로그램과 간단한 소개글
- 스폰 광고



반성폭력 자료집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문화제 프로그램

우리학교 성폭력근절을 위한 반성폭력 문화제

NON-FICTION

My Body is Battle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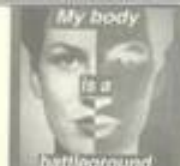
반성폭력문화제를 통해 우리는 중앙대 학우들에게 우리 대학 내 성폭력의 존재를 알리고 무엇이 성폭력이고 이것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이 관배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이 문화제는 노래공연, 촛극, 퍼포먼스 그리고 영화를 통해 성폭력을 나의 문제가 아닌 '남의 일', '별거 아닌 일'에서 '나의 일', '명확한 폭력을 행한 범죄'로 발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연회와 거리전, 자료집을 통해 성폭력이 일어났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떻게 사고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성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공포에 둘러싸인 삶인지를 상기하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이 아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곳 저곳 어디선가 구석에서 슬퍼하고 고통받는 성폭력 피해자가 내 몸의 세포 수만큼 존재하고 있다. 우리 알아야 한다. 실재인 것, 우리의 몸은 곧 전쟁터이다. 온전한 나의 몸으로, nonfiction!

what?

5월 28일 반성폭력강연회
5월 29일 반성폭력영화제
5월 30일 반성폭력문화제

[주관] 17대 스크래치총여학생회 [주최] 반성폭력문화제 준비팀
[反+] 17대 스크래치총여학생회, 페미니즘학회성별무너뜨리기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what?

반성폭력 자료집

528 反성폭력강연회

여성에 대한
테러리즘

군사주의와 성폭력

강사: 여성해방연대 소란

시간: 늦은 6시

장소: 2201강의실

5·28/29/30 反성폭력거리전

일상과 전쟁의
데칼코마니

성폭력은 현재 진행중

장소: 학내곳곳

529 反성폭력영화제

허구적 순결
이데올로기
때나라!

시원한 맥주와 차 즐기기 노천카페

장소: 늦은 4시 2차 민주광장

反성폭력 영화제

마돈나 진실 혹은 대담

301.302

스위터

장소: 늦은 7시30분 2차 민주광장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what?

반성폭력 자료집

530 反성폭력문화제

1부 Fiction 그건 폭력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성폭력은 폭력도, 범죄도 아냐. 그거 어떻게 성폭력이야? 너무나 많은 일이야. 그럴 수도 있지. 함께 지내다 보면, 일상에서의 성폭력. 오랫동안 나의 기억에서 충격으로 다가온다. 나만 잊을 수 없나. 말하지 못했다. 고립된 나의 고통과 공포는 매순간 나를 살아있지 못하게 만든다. 나의 행실이 시궁창이라고 비난하려는 폭력의 화살에 찔려서 쓰러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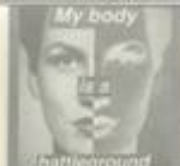
what?

反성폭력여성주의 퍼포먼스

가억하는고통, 성폭력퍼포먼스

우리학교락밴드씨커스

늦은 5시부터 2차 민주광장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what?

반성폭력 자료집

530反성폭력문화제

2부 Non Fiction 그건 폭력이야, 그럴 순 없어

우리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의 해결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학생회칙개정과 성폭력상담실의 역할을 알고 합당화 되는 가해자 중심주의를 타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여야 함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은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알자. 침묵하지 않으리, 말하리, 닫혀 있던 입술을 열어 아파하지 않으리, 그건 폭력이야, 그럴 순 없어! 다함께 흔들어, 소리질러봐, 뛰어!!

what?

우리학교성폭력사건, 그이후

싸이코드라마
여성합합그룹따따
국악대反성폭력창가
허름베리핀
늦은 6시부터 2차 민주광장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what?

반성폭력 자료집

530反성폭력문화제

3부 Reality 혹은 Realize 이해가 아닌 나의 실재

성폭력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있는 여성, 끊임없이 꽃하는 화살 없는 세상으로 해방, 너의 기억하는 고통을 이해함에 反하다, 그건 나의 실재다 反성폭력운동의 Reality 혹은 Realize, 합찬 선언과 학우들의 결의로! 픽션도, 논픽션도 아니다. 리얼리티. 우리의 실재다. 성폭력 강릉 우리의 손과 힘으로 아작 낼 수 있어!

w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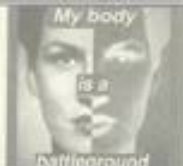
여성해방연대

락밴드

2002反성폭력운동!선언

성폭력강릉아작내

늦은 8시까지 2차 민주광장



반성폭력 자료집

on My body is a Battleground

what?

530反성폭력문화제

4부 Action 성폭력에 반기를 든다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그린 작품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이고 그릇된 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w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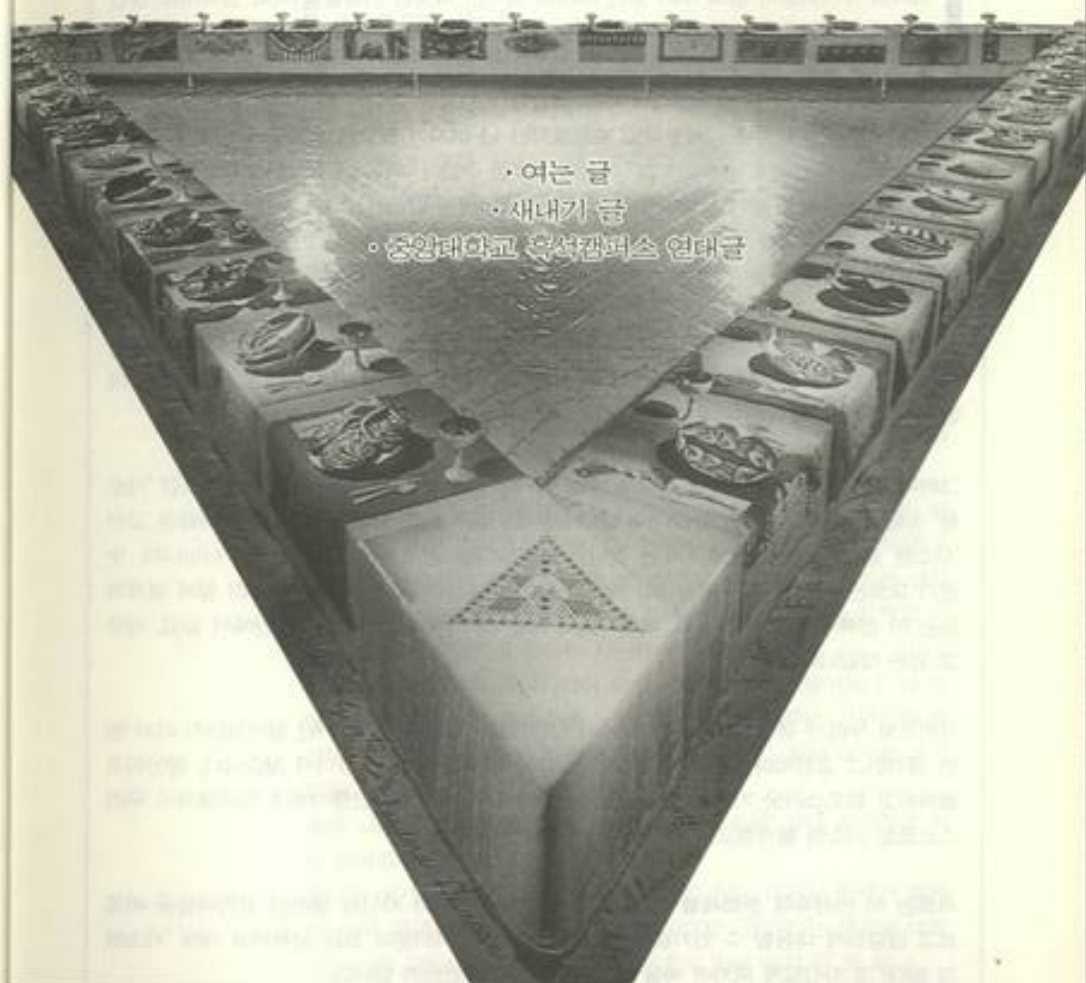
反성폭력 영화제2

피고인

늦은 8시 30분부터 2차민주광장

반성폭력 자료집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 여는 글
· 새내기 글
· 중앙대학교 학생캠퍼스 연태글

[여는 글]

여는 글

전북의 상상력, 금지의 선을 지우다 스크래치 총아학생회
반성폭력자치위원장 러브리 드림

■ 즐겁게 미(美)쳐보자는 어느 문화제에서 사회자가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양놈들 짓탱이 크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있는 그대로 작지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민족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자." 아, 얼마나 유머감각 넘치고 화가에애한 행사였을지 이해가 되기도 남습니다.

나이기도 얼마 안 갑수신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시려 유머를 구사하십니다. "여학생들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여자가 없으면 술맛이 안나거든.(폭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생겨먹은 걸." 덕분에 지루한 수업이 여유있고 유쾌하게 진행되는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재밌게 노시는 선배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 남자들, 발 야구 이겼다고 좋아할 거 없어. 이쁜 여자는 없고 이진 순 산적같은 기집애들만 잔뜩 들어와서 이진 걸. 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어쩌면 이렇게 사물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계산단 말씀입니까?

이분들은 자신이 한 발언이 왜 성폭력인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기사 가슴을 만져도 엉덩이를 더듬어도 감감을 해도 '성폭력이 아니다!'고 외쳐대는 사람들 투성이인 사회에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무슨 소용있다고 떠들어대냐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 반성폭력 문화제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를 통해 그런 '사소한' 것들과 싸우자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심한' 커다란 '엄청난' 성폭력들은 그런 '사소한' 성폭력들이 만들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픽션이 아닙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겪은 엄청난 고대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소하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폭력적인 한국 사회, 대학사회의 모습 그 자체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사소한' 것들이 진정으로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교정하러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익숙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기분을 안고 일상을 살아내거나 아니면 전쟁자체에 익숙해져서 우리 스스로도 사소한 불편함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저희는 이 반성폭력 문화제를 통해 읽고 보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둘러싼 성폭력들을 바로 보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폭력에 대해 '사소하지 않다!'고 자신있게 외치며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02년, 봄

[새내기 달팽씨가 바라본

성폭력과 구린 대학문화]

새내기 글

달팽이

■ 성폭력, 나에겐 왠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다.
■ 남의 이야기인 것만 같고, 무겁게 느껴지는 뭐, 그러나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것.

글쎄, '폭력'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하다 싶지만, 찜찜하고 불쾌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나 환상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O·T나 과 모임이 계속될수록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O·T내 술이 끊이지 않고, (포크댄스를 포함해) 꼭 여자, 남자가 짝을 맞춰서 춤을 춰야하며, 고 학년 남자 선배들은 듣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예쁘다', '어디 사냐?' '애인 있냐?' '다리가 잘 빠졌다'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건지, 게임의 벌칙이라는 것은 다 그 모양인지(그 모양의 예를 들자면, 남자가 여자를 업고 한 바퀴돌기, 큰 종아리에 소주 한 컵 원샷하기,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긴 타 학교의 친구는 O·T때 벌칙으로 여자 새내기는 누워있고, 남자 새내기는 그 위에서 push-up을 해야 했다고 하니, 그 보단 훨씬 낫다:-;

계속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다. 선배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과의 단합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분위기의 술자리가 아니면 친해질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즐겁게 노는 것만 같아서 나의 불쾌함을 표현할 수 없었고,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었다.

그런데 나중에 여자 새내기끼리 모인 자리에서 얘길 들어보니, 나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불쾌감을 느끼는게 아닌가. 대부분 '분위기를 끝까지', '원래 그런거니까', '다들 잘 노는 것 같아서', '싫은 내색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요즘 나는, '과의 단합을 위해', '친목 도모를 위해' 갖는 술자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싫다는 얘기가 하기 싫어서 아예 참여하지 않는 내게도 문제가 많지만,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여자는 꽃'이라는 생각과 대학의 이상한 신입생 환영회, 술자리의 문화도 바뀔 때가 된 것 같다.

중앙대 흑석캠퍼스 16대 코페르니쿠스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나무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간지럽히는 완연한 봄입니다. 푸른 꽃으로 새롭게 단장한 교정에는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울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갖 만물이 자신의 생명력을 뽐내며 생동하는 5월에, 안성에서는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성폭력이 우리의 일상 속에, 서로의 관계 속에 뿌리깊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주변에 성폭력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현실의 또 다른 이름이기에 참 슬프기도 했습니다.

새내기들을 처음 만나는 새터에서, 어눌함을 통해 두터운 관계를 다지는 MT에서, 편하게 쉬어 가는 파방에서, 공부하는 강의실에서, 사람들과 좀 더 친숙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술자리에서 성폭력이라는 불청객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불청객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에 의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여성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 성폭력이 여남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꿈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밭 달고 살아가는 곳을 진정 성폭력에서 해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여남이 주체적인 존재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은 힘 없이 내딛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성에서 펼쳐지는 반성폭력 문화제가 의혈을 바꿔나가는 거치른 파문이 되길 바랍니다. 흑석 총여학생회 또한 안성 총여학생회와 어깨 결고 성폭력 없는 의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If you're raped, you might as well "relax and enjoy it," because no one will believe you!



In 1988, for example, of the estimated 185,000 rapes in the U.S., there were only 39,160 arrests, resulting in 15,700 convictions.*

* Source: 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90, U.S. Department of Justice

A PUBLIC SERVICE MESSAGE FROM GUERRILLA GIRLS 532 LA GUINOA PL. #237, NY 10012

1. Nonfiction

-성폭력 종합 선물세트



성폭력은 소설도, 가상현실도, 특정출판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이다.

Nonfiction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은 소설도, 가상현실도, 특정출판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이다.

일상에서의 성폭력

선후배간의 술자리 성폭력, 데이트 강간, 부부 강간, 사이버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성폭력적인 치어 문화, 남학생 '미스' 대회(환경형 성폭력)

전쟁에서의 성폭력

보스니아 강간캠프에 대해

(컷 만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선후배간의 술자리 성폭력]

선배님들, 술자리에서 개되지 맙시다. 왈왈~

흔히 술지라는 성폭력의 온상지라고 한다. 대학 내 선후배
관계의 위계질서가 만연한 문화일수록 술자리 성폭력은 비
일비재한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술자리 문화의 일그러진 모
습이다. 그렇다면 선후배 관계의 위계질서 뿐 아니라 잘못된
공동체 의식, 남성 중심적 권동주의 등 술자리 성폭력이 가능
하게 하는 문화는 참 많이 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다
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술자리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자.

술 마시고 한 일인데 뭐, 일어! 일어?

피해자(여, 21 세내기)는 가해자(남, 24 예비역)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인 선배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다그치며 우리 동아리에서는 '무조건 원샷'이라고 말했고 '어린 것이 어디서 뽕끼를 치냐고 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억지로 술을 한 두 잔씩 받아마시다가 취해버렸다. 가해자는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성폭력을 가하였다. 다음 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사귀자는 말을 했으며 거부할 때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참아야하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피해자(여, 20 새내기)는 과 개강총회에서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선배들과의 술자리가 어색했지만 나름대로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 위하여 선배들이 하는 농담을 잘 받아치곤 했다.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남자 선배들은 음담패설을 하기 시작했고 예비역 선배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어깨를 더듬거나 '나랑 사귀자' '너 좀매 죽인다'는



등의 말을 했다. 피해자는 너무 당황했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술자리 분위기를 망치게 될까봐 참고 넘겨야 했다.

택도 없는 소리!!!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후배에게 마시고 싶지도 않은 술을 마시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후배는 술자리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하여 선적인 농담을 듣고도 참아야 하는 것인가. 선후배간의 권력관계가 성폭력 사례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학 내 술자리 문화는 이러한 나이위계가 남녀 간의 성별위계와 맞물리면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낳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요인의 첫째는 우리나라 대학문화의 공동체적 성격이고, 둘째는 바로 남학우에 기댄 잘못된 평등의식 요구이다. 학생들은 술을 마시거나 놀이문화를 즐기는데 있어서 남녀구별이 없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나 이미 요구되는 문화의 성격 자체가 권위적이고 왜곡된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우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무시하고 남학우들과 똑같이 즐기고 수용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보다 많은 여학우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부정하거나 사실을 감추게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괴로움보다는 집단의 분열과 대외적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데이트 강간 부부 강간]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하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이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가 성폭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폭력의 개념은 '동의 없이 타인의 몸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서로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데이트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랑하는 사이에 '싫고 종고'가 어디 있나?

피해자(여, 21)와 가해자(남, 21)은 애인 사이이다. 사귀기 1년째 되는 날, 두 사람은 바닷가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바닷가 민박집에서 잠을 자다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여행 중이라 너무 피곤하기도 하였고 스킨십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절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싫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고 다그쳤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애인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성폭력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로의 몸을 소유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의 없는 타자의 몸에 대한 침해라는 것은 상대의 몸을 내 소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일어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나 가해자의 유언이 크게 작용한다. 피해 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때문에 법적처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데이트성폭



력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다. 남성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공격적이 되도록 교육받고, 성적으로 강하고 그들의 남성성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입받는다.

여성과 남성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도 문제가 된다. 여성은 단지 친절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남성은 이 친절함을 '성관계를 해도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싫어요'는 '할 수도 있어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강하게 저항해도 어떤 남성은 여성의 '싫어요'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데이트성폭력은 단순히 한 순간의 열정에 의한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린이 성폭력]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이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성기 삽입형 성관계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의문이 들것이다. 어린이 성폭력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성폭력 : 말로 희롱하는 것,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일,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일.
- 성기 이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 :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일, 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일.
- 성기뿐 아니라 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 :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일.
-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 허벅지 사이에 끼우게 하는 것.
- 피해자의 입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
- 피해자의 질, 항문에 가해자의 손가락이나 이빨질을 삽입하는 것.
- 어린이에게 악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동시에 위의 여러 성폭력도 함께 하는 것.

어린이 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배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사이버 성폭력]

www.사이버 성폭력.com

바야흐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시대, 팔자 같은 컴맹도 최소한 하나의 커뮤니티와 하나의 메일정도는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익명성이라는 편안한 옷을 입고 무엇이든 멋대로 할 수 있는 공간, 사이버 세계. 그 '자유(너무나도 방만한)'와 '은밀한 익명성'이 가져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향한 무시무시한 테러가 있으니, 이름하여 '사이버 성폭력'. 이 생소한 이름에 다소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나, 예시를 들어보아 보겠다.

1. 채팅 할 때 자주 당하는 황당한 일 -사이버 속의 변태 시키들

치맛속 구경 좀 할까요?

전 22살의 친구 아이디를 빌려서 채팅을 침 해본 여성입니다. 처음 들어 오자마자 한 메모를 받았습니니다. "치마 속 구경 좀 할까요?" 그래서 당황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있자 다시 메모가 오더군요.

"어서 와. 팬티 속 구경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남자 인척을 하며 남자라고 말을 하자 "여자면 오라구. 너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싶다" 라는 메모가 연이어 오더군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반말로 불쾌하게 오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사과문을 써서 올리지 않으면 나쁜대로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자, 메모가 끝으로 다시 오더군요. "내 몸을 드러드리겠습니다" 라구요!

제 친구도 여러 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는 이제는 채팅을 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이야기의 장이 되야 할 통신문화가 이따위로 흘러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여자들은 통신에서도 "성폭력"에 시달려야 하는지 지금도 너무 놀라 흥분을 가리앉힐 수가 없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로 내담자의 동의하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http://www.sekss.or.kr>)

2. 2001년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까지

사이버? 가상공간?

문제의 발단은 월장과 참간호 '도마위의 예비역'이라는 특집 기사였다. ('예비역이 싫은 몇 가지 이유', '예비역이 본 군대와 예비역 문화', 'do 신고합니다를 신고합니다' 등으로 구성된 기획 특집)

제목들만 보아도 특정 집단의 격심한 반발을 샀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역의 반발은 그저 반발이 아닌 '게시판 테러'로 변했다. "개 같은 미친년들", "갑밤에 보내야 할 싸가지" 등 욕설부터 시작해서 "밤길을 조심해라(아이다: 강간범)", "재대하면 제일 먼저 네년을 박살 내주마, 나 복학할마 안 남았다(아이다: 군발이)", "학교 다닐 때 숨어라, 걸리면 워커 발로 면상 까버린다(실명을 밝힌 예비역)", "보지를 잡아 찢어 죽이겠다" 등등의 협박성 글까지 '테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글들이 마구 쏟아졌다.

사이버? 현실공간!

그러나 더욱 심각한 사건은 그 이후다. 한 예비역을 통해 월장 집필진의 실명, 학과, 학번이 모두 공개되어 "강간 혹은 구타" 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심심하게 올라, 수업조차 제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월장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회원 가입을 하였던 4명의 여성들에게 폰섹스를 하자는 전화가 걸려온다. 월장 커뮤니티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한 누군가가 회원들의 정보를 폰섹스 게시판에 회원들의 정보를 올려, 폰섹스하자는 전화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 부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을 신고하여 범인을 명예 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다.

그냥 잊어버리라고? 덮어두라고? 그건 '의사 개진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위의 사례처럼 사이버 성폭력은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시간적 물리적인 피해로까지 발전한다. 단순히 잠시 기분 나쁜 것, 참으면 그만인 것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당시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 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테러나 성폭력 등은 그냥 웃고 지나가거나 '미친개에게 물렸다'는 식으로 그냥 방기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폭력을 극하게 받고 있는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엄연한 폭력이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폭력을 공공연하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그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폭력이 난무한 이반의 세상으로 만드는 하나의 길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다. 여론을 형성하고, 타인의 의견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 네티즌들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아무리 익명이라도 '자신'은 알고 있다. 스스로 침묵이 되려하진 말자.



[환경형 성폭력] -성폭력적인 치어 문화]

새내기들아, 우리 학교는 5월만 되면
무서운 '치어' 마술에 걸린다

~치어나라, 춤 추는 중대 나는 마술이 싫어요.

1. 왜? 왜? 왜?

비디오를 본다. 제목은 <아메리칸 뷰티>다. 금발 미녀가 나와서 엉덩이조차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는 짧은치마, 가슴과 허리가선 자극적으로 드러나는 상의의 치어복을 입고 열심히 춤을 추고 있다. 치어 리더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 치어(dier)의 본래 의미인 선수들의 기운을 더욱 북돋아 주고, 관중들의 응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해변쪽 입을 벌리고 침 흐르는 꼴도 모르고 치마 밑 훑쳐보기에 바쁜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에서의 구현되는 치어와 치어리더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적인 시선들의 구미에 잘 맞는 상품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나온다. 그리고 그녀들의 몸은 아무렇지도 않게 타자들의 눈앞에 전시되고, 또 팔린다.(물론 현실사회의 한국에서 '치어'를 직업으로 선택한, 농구장 야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어리더들 또한 마찬가지다)

불쾌한 기분으로 비디오를 켜으나, 작년 5월에 있었던 대중제의 '치어'가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대학사회에서 우리의 '치어'는 영화 속에서 드러났던 '치어'의 문제들에서 자유로웠던가, 혹은 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하는 물음을 던져본다.

대학에 들어서서 나름대로 하고싶은 일과 꿈에 대한 자기개발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새내기인 나, 하지만 4월 한 달은 선행배의 압도적인 감요에 의해 5월 치어를 위한 연습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선행배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웬지 중요한 것 같아서, 모두 재미있어하고 모두들 하기 때문에……' 이처럼 치어를 하는 나의 마음들 속에는 관찰하는 자, 알지 못할 타자의 시선만 가득할 뿐, 나는 없었다. 물론 한달 여의 기간동안 나는 동기들, 선행배들과 땀을 흘리며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



낄 수 있었고, 공통된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 위안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다시 시작하는 5월, 전 캠퍼스를 울리는 치어 반주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은 도대체 몇 때문일까?

2. '치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치어문화가 문제다.

(1) 왜 이렇게 못해? 우리 과가 이겨야지. '오늘도 밤샘연습이다. 절도 있게 다시 한번'

2001년 학기 초, 선행배의 치어 감요와 심한 체벌에 의해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만한 나이의 대학생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게 할 정도이면, 그 문화가 얼마나 억압적이고 일방적 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또, 스파르타식의 과도한 연습으로 다리 부상을 입었던 일도 있었다. 듣기로 올해도 총학생회실로 "치어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요, 혹은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다"류의 항의전화가 온다고 하던데…….

선행배의 '감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치어를 해야하는 상황, '안 되면 때려서 가르쳐라,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 해라'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연습방식은 확실히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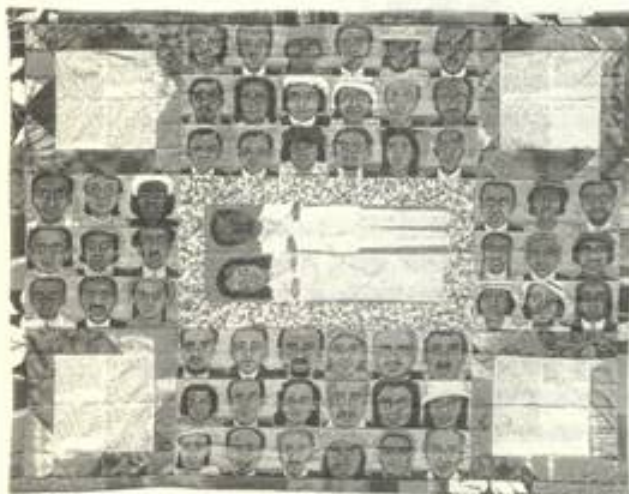
(2) 너는 잘 빠졌으니까 치어해야지? 애들아, 올해도 미니 스커트에 탱크탑이다

나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고 나시 티 입는 것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전혀 없다. 오히려 색수염한 것은 환영하는 인간이다(-_-::). 고로 이 문제제기는 미니스커트와 탱크탑 자체에 대한 탄지가 아니라, 모두 입을 수밖에 없는, 강제 입히고 '해벌레' 구경하는 상황에 대한 탄지이다. 예를 들어 여자애들은 "치마를 입는 게 보기 좋지 않느냐"라는 성 차별적인 재단에 의해 때때로 원치 않는 치마를 입어야 하기도 하고, 타자화된 시선·자신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때때로 위에서 언급했던 직업 치어 리더들처럼 과도하게 짧은치마와 달라붙는 치어복을 입으며, 성 상품화의 경향까지 하게 된다. 또한 치마를 입은 뒤에도 원색없이 남성의 시선에 의해 자신의 몸을 검열 당하게 되며, '가슴이 작다, 엉덩이가 크다, 다리가 굵다, 뚱뚱한 게 치마를 입고 나와 보기 싫다' 등의 험한 성적 발언들을 듣게 된다(앞에서는, 뒤에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굳이 여 학우들이 치마를 입지 않고 하게 되는

치어에서도 '우리 과 여자 애들은 모두 몸매가 안돼서 바지 입는 게 낫다. 쪽쪽 땀뻘한 xx와 애들이 우리 과 라면 치마를 입고라고 할텐데'등 성폭력적 발언이 존재하는 것은 마한가지다. 또 치마를 거부하면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 애들만 유별나다. 이번 새내기들은 왜 이렇게 과민하냐' 식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선배로부터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게다가 실사 치어를 참가하는 모든 주체가 미니 스커트와 탱크탑을 원했다고 해도, 원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는 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환경형 성폭력'이다!



[환경형 성폭력2 -남학생 '미스' 선발대회]

본적 있니? 남학생들의 여장미인선발대회

새터나 축제 때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남학생들이 진한 화장에 커다란 풍선을 가슴에 넣고 여성성(?)을 자랑하며 여장미인대회를 하는 것이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몸을 대상화한다는 이유로 안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등장한지 몇 해가 넘었는데 아직도 대학에서는 남학생들이 여장을 하고 나와 또 다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 것이다.

커다란 엉덩이와 커다란 가슴, 진한 화장과 짧은 치마만이 아름다운 여성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일까? 여성의 몸을 읽어내는 코드가 성적인 것뿐이라면 남성을 읽어내는 코드도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지만 상상해보라. 아름다운 남성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학우들이 커다란 성기를 달고 나와 경연대회를 한다

만?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하지만 실제로 대학 내 축제에서 남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나와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대상화, 희화화하고 있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언어적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 작년 모대학에서 이슈가 되었던 여장미인대회에 대한 뉴스 기사를 옮겨보았다.

◎ 영가: 최근 한 대학교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장미인대회를 환경적인 성폭력으로 규정해서 남학생들의 시라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뉴스 7 데아기력 오눔은 홍수진 기지가 이 논쟁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지난 2일 모 대학에서 벌어진 남학생들의 여장미인 선발대회. 여성의 가슴을 지나치게 러상해 웃음을 유발하고 다리를 머금은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 정 수(모 대학 여성위원장) 사립자가 그 가슴을 만지면서 사립을 본다든가, 각선미 죽인다, 가슴 멋지다, 여자는 가슴이 정말 최고야, 아니면 엉덩이가 최고다 라는 식의 그런 발언이 계속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면서 여자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 기자 이 학교 여성위원회의에서는 여장남자 미인대회를 함께 했던 여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준 환경적인 성폭력으로 규정했고 주취측은 공식적인 사과문을 냈습니다.

◎ 각종현(미스 문래대) 준비단장 미스 문래 선발대회가 언어적이고 환경적인 성폭력이라면 저희들도 그러한 바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바이고 저희들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죠.

◎ 기자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춰져있던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남자가 아닌 동료로서 동등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학생들의 주장입니다.

◎ 조진보(모 대학 여성위원장) 대문사립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그런 인간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편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같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 기자 이 대학에서 벌어진 일은 물론 법률적인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 허영(회사원) 상대방이 우선은 기본 나쁘게 생각하면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 데...

◎ 허준(회사원) 기본 나쁘다고 얘기했을 때도 상대방인 남자들도 인식을 하게 되니까 아, 그래 저 사립이 기본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면서 남자들에게서도 인식변화가 되는 것 같은...

◎ 기자 실제로 3년 전에는 17건에 그쳤던 성희롱 접수 건수가 올해는 131건으로 7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성희롱이나에 대한 해석은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KBS뉴스 송수진입니다.

(KBS뉴스 2001.11.22)

[전쟁과 성폭력]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바람(제2대학 중앙본부, haly@dreamwiz.com)

내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초경이 시작될 무렵인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 때, 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눈으로 확인하며, 생리통과 생리할 때의 불편함을 저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전교조에 속해있던) 담임 선생님께서 일제 시대 정신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조선의 어린 여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일본군이 있는 전장에 위안소라는 이름의 막사를 만들고, 군인들에게 그 여성들의 성을 팔게 한 행위. 지금도 생생한 것은 그 막사의 풍경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사람 한 명 누울 정도의 방에 여자들이 누워있으면, 방문도 아닌 짚으로 만든 발을 짓히고 군인들이 들어와 그 여자를 차례로 밟고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나를 포함하여 여성이라

는 존재는 폭력과 권력 앞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고작 매달 생리를 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짐승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내가 여성이라는 것을 자주스러운 사실로 느끼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오고, 여성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자가 짐승처럼 대우받는 것은 한 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사 이래 모든 전쟁에서 성폭력과 성매매가 일어났고, 세계의 모든 군대에서는 여성을 군인들의 성적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난해 미국의 보복 전쟁 시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감간의 회



생양이 되었고, 이 여자들 중에는 어린이들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어린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하다. 헤라트의 난민촌에서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누군가 지나가는 나를 천막으로 끌어당겼다. 안에는 1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혼수상태로 널브러져 있었다. 가족들은 재발 실패를 두려워 아이 치마를 들쳐보았다. 얇은 천은 시꺼먼 피와 고름 범벅이고 악취까지 진동을 했다. 외국인인 나를 의사라고 생각했다는데 여자들은 반드시 여의사에게만 보여야하는 관습 때문에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두고도 속수무책이었다. 놀랍게도 이 여자아이는 피난길에 수 차례의 윤간을 당했다. 반군들에게는 물론 정부군들도 몸을 짓을 했는데 총을 든 군인들의 행패라서 가족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난민촌에 도착하기 며칠 전 반항하는 이 여자아이의 아랫도리를 군인들이 개머리판으로 마구 때려서 저렇게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부녀자 강간이 주민들을 '길들이고'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보상의 일환으로 묵인된다는 점이다. 여성의 순결을 가족의 명예이자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강간이아말로 반대세력에게 불명예를 입히는 제일 '효과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한비아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오지여행가)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이런 끔찍한 폭력들은 비단 미국 보화전쟁의 예만은 아닐 것이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만들어진 강간캠프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 군인의 화생양이 되었으며, 내전의 당사자들은 그 여성들을 강간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그러한 강간의 화생자화된 여성들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짐승으로, 남성들의 전쟁에 하나의 도구로 존재했던 것이다. 여성에 대한 강간이 반대 세력에게 불명예를 입히는 제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현실은 이슬람 문화권에만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여성의 순결이 그녀의 아버지 또는 남편의 책임 하에 있으며, 여성들의 몸과 성이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회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은 이런 식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남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당시 남성 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만은 아니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남성 군인들에게 있어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들의 존재로 인해만 들어지는 것이다.¹⁾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는 남성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남성 군인들의 사기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었다. 일본인 남성 군인들은 일본의 식민국이었던 조선과 대만 여성들의 순결을 그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에게서 빼앗아 소유함으로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일본의 조선/대만에 대한 식민 지배를 유사한 형태로 상징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전쟁과 군대의 존재를 정당

화하는 것은, 전쟁시 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유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식민지와 분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군사주의 (militarism)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비하, 그리고 기지촌으로 불리는 미군 기지 근처의 성매매 지역,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평화시에도 전쟁과 군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군대에 가기 전의 남성들이 외래적으로 하는 행사 중 하나인 사창가 방문(?)은 한국 남성들이 어떻게 남성이 되어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젊은 남성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인 이 행사에서, 입대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 남성은 물론 그 또래들은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²⁾ 성매매를 경험한다. 마치 술자리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이 경험을 통해, 군대에 가는 인간 남성과 그를 남성에게 일시적으로 소유되는 비인간 여성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치 통과례처럼 이루어지는 그 경험의 외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성들에 의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쟁과 군대가 여성

1) 평화시의 군대에서도 훈련이나 비상시에는 남성 군인들의 대부분이 성적인 욕망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육체적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조건과 심리적 상태에 의해 성욕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은, 발정기에만 섹스를 하는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성일 것이다. 많은 남성들이 남성의 끝없는 성욕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매매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를 동물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물론 남성들 모두가 이 행사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지배적인 분위기가 성매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3)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성에 대한 대상화와 비하하는 군대가 남성만의 집단이라는 환상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서의 여성비율이 높은 이스라엘이나 유럽의 경우도 여성 비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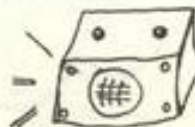
을 어떻게 위치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불가피함을 이유로 존재하는 군대는, 전쟁과 군대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구조에 의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문화의 극단을 보여준다.³⁾ 약자에 대한 폭력을 매개로 하여 그 존재를 정당화하는 군대와 전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 - 심리적, 물리적 폭력 모두를 포함하여 -을 통해 군인들의 자기진작을 꾀하고, 그러한 문화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모든 군부대 앞에 있는 사참가와 군인들의 일상 문화 속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군사주의 문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며, 이러한 군대의 문화는 한국사회 전반의 문화로 확대 재생산된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유사한 폭력들이 군대 밖에서도 쉽게 찾아지며, 군대 언어와 위계질서는 한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은 평화시나 전쟁시 모두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는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들과 무관한 일이 아닌 것이다. 군 위안부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여성의 순결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보스니아 내전 당시 감금캠프를 정당화하던 남성의 무한한 성욕에 대한 신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입대전의 남성들에게 있어 통과의례인 사참가 방문은 한국 남성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술자리 문화의 연장선상으로, 수없이 많은 형태의 성매매를 만들고 유지하는 원형적 경험이 된다. 광고나 영화, 포르노에서 반복 생산되는 여성의 성에 대한 대상화의 상징들 전쟁과 군대, 여성의 관계에서 그렇게 멀리 않은 현실인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남성의 지배는 전쟁시를 통해 극대화될 뿐, 일상에서 여전히, 그리고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유지된다. 전쟁시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여성들이야말로 전쟁의 최대 피해자이며, 그 전쟁을 가장 급진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전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내가 말해줄게.

성폭력에 대한

잡 못 된 통념!!

Item: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남자: Judas

도움: 성병 무료검사 센터

잘못된 통념 1.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성을 공격무기로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 행위이지요.



잘못된 통념 2.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성문화 때문입니다.

많은 성폭력의 경우,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잘못된 통념 3.



여성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
이다?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다니!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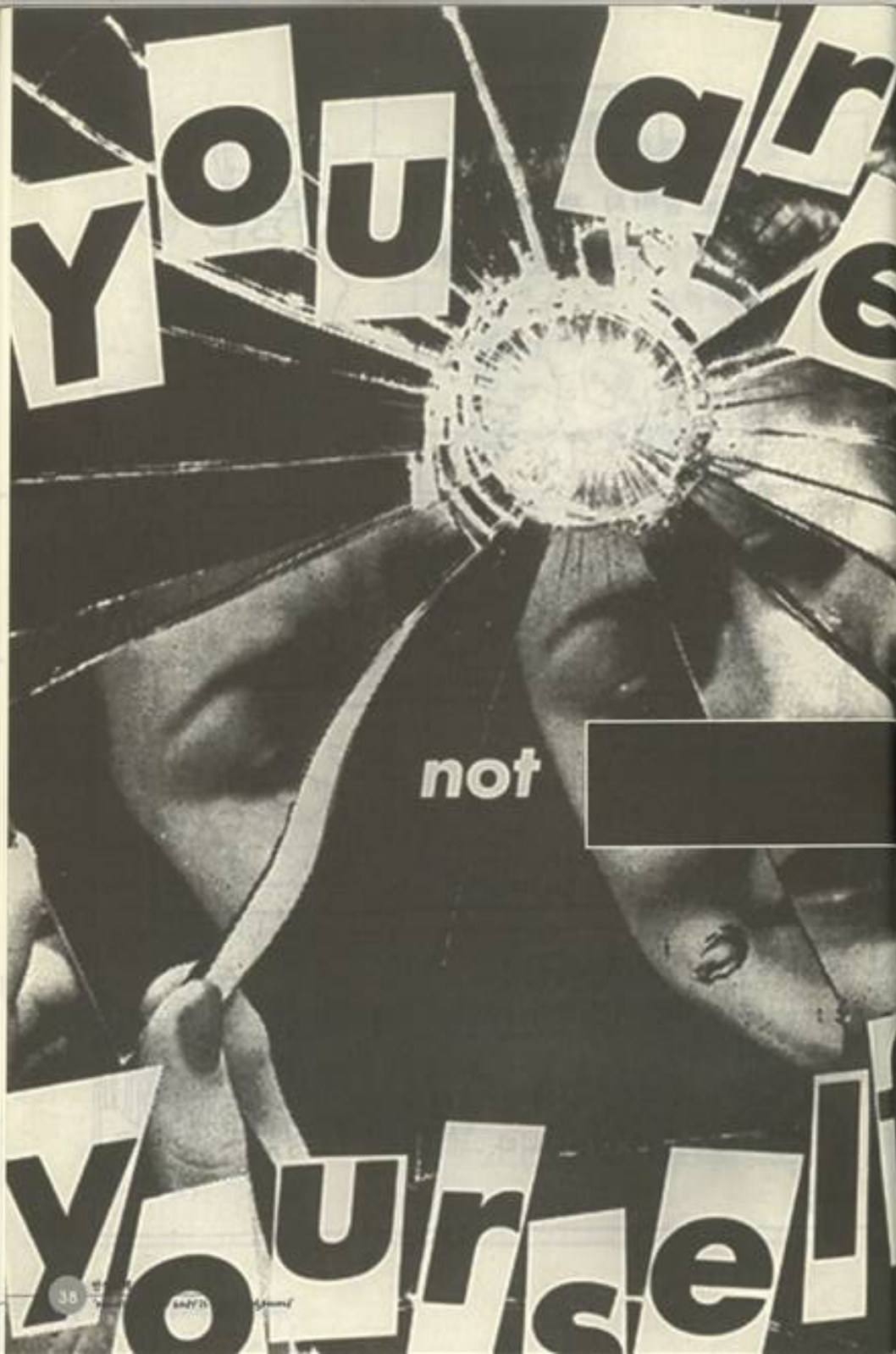
잘못된 통념 4.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이런 통념은 강간을 화간으로
물고 가는 데에 많이 쓰이죠.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물리적, 심리적 위협 때문에
저항하기가 매우 힘들답니다.





not

My Battleground + ing

공성민 성폭력 사건해결과정과 후기

학내 성폭력 발생 후 신고 및 처리과정

대응방법

48시간 내에 강간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성폭력 상담소)

공성민 성폭력 사건으로 살펴보는 학내 성폭력 해결과정

반성폭력위원장 러브리

시작하는 말

2002년 1월 당시 산업대 생명공학과 학생회장이던 공성민(97)이 술자리 이후, 열자리에 서 자고 있던 피해 여학우 2인을 차례로 성추행한 사건(이하 공성민 성폭력 사건)을 대부분의 학우들은 대자보와 공고, 중대신문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공개된 사건은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학내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해 실재적으로 접하게 된 학우들이 많으리라 본다. 또 알다시피 공성민 성폭력 사건은 작년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고 학칙이 적용된 첫 케이스이기도 하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되었는지를 좀 살펴보자. 학내 성폭력의 해결과정이라는 것은 처벌보다도 '공개'라는 것에 논란의 쟁점이 있다. 대부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고, 또 하나는 해결주체가 무슨 정부기관, 사법기관이 아니라 학내단위이다 보니 해결과정의 '공신력' '공정성' 이런 말을 하게 되어있다. 러브리에게 문제제기한 지점들이 다 그랬는데, 대부분 해결과정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 알고도 우기는 사람 몇 있었지만, 고인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은 설명해주면 다 이해했다. 사과도 받았고(으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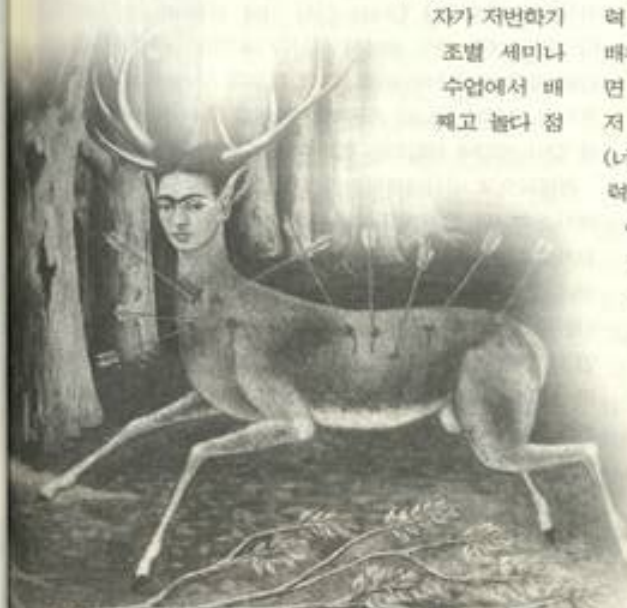
음, '설명해주면 다 이해했다'고 하니 무척 위위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두 안쉬었다. 설명하려면 상대방에게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과외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미분 적분 시험범위인 학생이 함수를 모를 경우에 느껴지는 그 절망감과 좌절. 러브리는 그런 것 참 많이 느꼈다. 함수 더 떠 나누기도 벅박거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미리 먹은 과외비 뺀고 도망가고픈 그 충동. 물론 우리 안성 학우들, 나누기 못하는 머리 나쁜 학우들 아니다. 다만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이었던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려면 아주 복잡하다. 학내 성폭력이란 게 말 그대로 학교, 우리가 4년, 러브리처럼은 5년씩 다니는 집 다음 소중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나한테는 무지하게 잘해준 선배나 후배, 친구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그럴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저번학기 조별 세미나 수업에서 배제고 놀다 점

수만 받아간 못된 조원일 수도 있다. 사람인데 이런 저런 거 생각 안 할 수 없다. 사건 바라보기 참 머리 아를 수 있고 막 가해자 편 들어버리고 싶을 수 있다. 총여학생회나 여학생회같이 평소엔 성폭력에 지대한 관심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도 개별적 사안에서 균형 잡는 거 정말 힘들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으로 마음 흔들리지 않을 때 공부를 해 봐야 한다. 참 힘들었던 게 그거다. "비대위가 피해자 편만 든다." 뭐 이런 거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비대위의 목적에 대해 모르거나 이해 못 해서 그런 거니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 근데 '비대위가 어디서 끌려온 똥대 나사냐' 뭐 이런 건 정말 눈물 나 온다. 예허.....

한탄하다 서론이 길었다. 학내 성폭력 해결과정, 그것을 알려주마. 열심히 배워서 주변에 망설이는 피해자 있으면 신고해서 해결하게 도와주고, 행여 저 후배 귀엽고 어리버리하니 좀 짹짹(너한테는 짹짹이지만 고개 바로 성폭력되겠다)거려봐도 별탈 없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반성하고 새 길 찾길 바란다. 학내 성폭력 해결의 역사도 드디어 1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실제로 변했다. 그렇게 세상 만만하지 않다.





궁성민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

1. 신고접수

지난 1월,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총여학생회에 궁성민 사건이 처음 신고되었다.

2.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립

총여학생회에서는 피해자를 만나 사건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이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다. 중앙대에서는 성폭력사건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립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반성폭력 자치규약이 잘되어 있거나 학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 다른 학교들은 학칙이나 사법과는 별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폭력이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며 공동체 체계 안에서 사유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성립하는 단위이다.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예지만 구속학우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학우의 구속이 그 학우 혼자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연대할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에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관계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체계는 1)신고단위 2)가해자소속단위 3)피해자 소속단위 4)학내여성운동단위의 참가로 이루어진다.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곳이다. 성폭력은 누구도 말하듯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아무리 대학사회라 해도 피해자의 피해보다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내가 보기에' 성폭력'이다 아니다부터 논쟁하는 사회인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흡하고 사법을 비롯한 처리과정도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단위 연대체로서의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이다.

3. 비대위의 활동

1)사건조사

맨 먼저 착수한 것은 사건의 정황조사였다.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증인에게 사건 정황에 대해 듣고 녹취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목격자가 있고 가해자가 가해상황전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비대위는 꽤 많은 기간을 사건 조사에 할애했다.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 말만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사실과 다른 오해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체계는 그렇게 허술한 체계가 아니다. 택시 타다 감도 살해되었는데 "왜 여자가 일찍일찍 집에 안가고 그 오밤중에 택시를 타는지 모르겠다"는 요지의 뉴스가 방송되는 세상에서 조사도 안하고 허술하게 피해자 인권보호한다고 했다가 살아남겠는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증인의 증언을 확보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성폭력'이라는 것이 드러나고서야 비로소 사건해결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위에 말한 저런 오해는 아마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단어를 오독한데서 오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도농차 중심주의

성폭력 해결과정의 원칙이다. 피해자의 경험을 우선한다. 는 원칙.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피해자 말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먼저 성폭력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그림 한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일까?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뺨을 다정스럽게 쓰다듬었어도 낯바친구가 하면 러브러브한 애정표현이고 이사오고 인사 2번한 아랫집아저씨가 하면 성폭력인 거다.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 피해자의 판단인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가해자들은 "싫어하는 게 너무 좋아서 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친 놈 빼고). "좋아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걸 원하는 것 같았다" "싫으면 왜 남의 방에 따라왔겠냐"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자신의 느낌, 판단으로 가해를 합리화한다. 피해자중심주의는 그런 합리화에 맞서, 피해자의 경험을

피해자 대리인이란?

피해자는 피해자가 사건을 재차 설명해야하거나 가해자 혹은 가해자에게 동조한 자를 대면할 때 느끼는 심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해결이란 기본적으로 1)피해자의 침해당한 인권을 회복하고 2)가해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하고 3)재발을 방지하고 4)공동체의 성폭력적 환경을 개선한다. 뭐 이런 대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1)피해자의 침해당한 인권의 복구이다. 피해자에게는 사건을 계속 말하고 떠올리는 것 자체가 2차 3차의 가해가 된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원칙이다.

2) 피해자 보호

이 사건이 성폭력으로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해자 공성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1. 공개사과대자보
2. 피해자와의 공간분리—피해자의 졸업시까지 휴학과 학교출입금지
3.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재교육

공개사과대자보는 가해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 이외에, 가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퍼지기 마련인 사건에 대한 소문을 차단하고 진실을 공동체에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문제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이를테면, 휴학을 하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간다▶그러므로 처벌이다▶학칙과 사법에서도 처벌인데 그럼 이중 처벌이다, 부당하다! 뭐 이런 논란이 대부분이다. 딱 잘라서 말하자면, 공간분리는 처벌이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같은 공간—주로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피해자의 인권은 그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학내 성폭력은 주로 같은 과, 같은 단대, 같은 동아리의 아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다. 하루에도 몇번씩 마주치는 좁은 학교에서 피해자가 학교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 견뎌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견뎌내는' 것일 뿐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의 교육권과 사교권은 무엇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중 처벌이라는 등의 논리는 결국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가해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공간분리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가해자 재교육은 요즘은 학칙이나 사법과정에서도 같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성폭력 가해는 단순히 개인의 결점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육받은 성폭력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재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하여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가해자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이외에도 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4. 피해자 상담에 드는 비용을 전액 가해자가 부담한다. 가 있다.

4. 사건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사건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사건발생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

점이었다. 교수성폭력이 아니라면, 대개의 사건공개는 공개사과대자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학내 성폭력의 주양상이다. 이번 공성민 사건에서 흔치 않게 공개사과없는 사건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게도, 가해자 공성민이 공개사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니, 가해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자체를 안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성민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부한 시점은 1차와 2차 진술서를 제출한 후, 녹취를 통한 진술을 받아야 할 시점이었다. 진술서와 비대위 위원 면담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폭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던 그는 증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조사거부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재차 삼차 설득했지만 소용없었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역시 거부. 공개사과는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당시 사건공개 대자보에 기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나에게 서문에서 말했던 '적분을 가르쳐야 하는데 나누기를

못하는 학생'을 대하는 당혹감을 일으켰었다. 논리의 정체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의 신뢰성 여부는 역시 대자보에서 논한 바이지만 차치하더라도 그의 대응태도는 같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참으로 실망스러웠고 지금도 실망스럽다.

여하튼, 사건공개가 있고 나서 안정은 잡지 못했다. 그 논쟁의 와중에서 러브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전해들었는데 사건정황에 대한 재탐대로 해석과 2차가해성 악성 음해들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두 갈래의 합의가 있었다.

비대위가 뭘대 나 서나—이건 위에서 비대위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말했다. 실명공개는 가해자 인권침해다.

음, 이걸 심각하게 들어오고 점점게 들어왔던 항의이고 가장 많이 들은

항의이고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항의이다. 물기로, 사건공개 대자보앞에서 비대위의 인권탄압에 분개한 얼굴로 "잘못해도 그렇지 무신 권리로 실명공개를 하느냐"고 후배에게 일장연설을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다. 좀 안됐다. 그 후배 담당 비대위에 문의해 왔다. 여기에 그 후배님께 설명했던 것을 적는다.

먼저 사건공개 대자보의 목적은 가해자



의 인권침해가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가해자가 행한 인권침해—성폭력 가해와 그 뒤로 보인 책임없는 행동을 비판하게 위한 대자보이다. 대자보는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책임있게 사과하지 않는다▶비대위는 가해자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책임있게 사과하지 않는다▶비대위는 대자보로 가해자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강력하게 생략해도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인권침해를 목적으로 한 공개일까? 게다가 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거절함으로써 가해자는 한번 침해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삼차사차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대자보는, 그것을 저지하려는 목적, 최소한 가해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동체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반론이 돌아온다. 그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인권침해를 해도 되나? 물론 그렇지 않다. 나는 “잘못했으니까 그정도는 감수해라”같은 삼청교육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성폭력 해결에 관여하는 사람들 역시 그럴 것이다. 실명공개 대자보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실명을 적시하는 것은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알 권리’라는 것도 있다. 신문은 김홍걸이 최규선한테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보도하지만, 보도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다. 아니 더 그렇다. 성폭력 사건은 공개되고, 토론하고, 공부해야 한다. 가해자가 하는 지 부당한 태도가 어떤 가부장적 모순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학내 성폭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학내 공동체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5. 반성폭력 학칙—성윤리위원회

조사와 사건공개 사이에 피해자들은 학칙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궁성민 성폭력 사건은 안성 중앙캠퍼스 최초로 반성폭력 학칙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되었다. 학칙은 아직 규정집에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궁금한 사람은 총여학생회나 학생생활연구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이번학기 녹자에도 실려있다.) 그리고, 조사와 회의를 거쳐 사건발생 3달, 학칙에 신고 2달만에 가해자 궁성민은 무기정학의 중징계를 받았다.

맺는 말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성윤리위원회의 징계이후 불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자보에도 밝혔듯이 진정한 해결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한 해결은 중앙대 안팎의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한 오지 않는다.

<<<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1. 병원으로 즉시 달려가도록 합니다.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병원에 가야합니다. 감감의 경우는 물론, 삼입이나 사정이 없었을 경우도 폭력을 당했다면 꼭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 가기 힘들 때는 총여학생회가 당연히 같이 가드립니다. 또 어느 병원인가도 중요하므로 총여학생회나 성폭력상담소에서 병원을 소개받는 것도 좋습니다.

2. 증거를 보존합니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48시간 내에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장소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품(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 사용했던 종이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합니다. 성폭력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상환의 목격자가 아닌, 도파쳐 나온 것을 목격했다던가 직후 대화를 나눴다던가 하는 것도 정황증거가 됩니다.) 지속적인 성폭력(교수 성희롱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일기를 써두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1)총여학생회에 신고할 경우

011-9589-7437(총여학생 회장 사탕) 011-9740-5424(반성폭력위원장 러브리)
같은 학생이라 조금 걱정되었지만, 의외로(?) 비밀 보장 확실합니다. 상담이나 문의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해주세요.

2)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피해일로부터 1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이전 6개월에서 개정) 각 경찰서마다 올해부터 여성·청소년계가 따로 신설되어 여자 경찰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 군대, 징병제, 그리고 여성

여성해방연대 학내지원팀 무영 (muyoung77@freechal.com)

1. 전쟁과 군대

■ '전쟁에 대한 반대'와

'군대에 대한 반대'

작년,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미국의 폭격전이라는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어느 때보다 반전의 움직임들이 감졌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반전을 얘기했다. 나는 궁금해졌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일까, 아닐까?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처음으로 들었던 '반전'의 구호는 '반전반핵 양키고함'이었다. 물론 그 구호의 이면에는 '양키를 몰아내고 자주 국방 강화하자'는 구호가 더 있었다.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순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만의 모순이 아니라, 군대 자체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모순이다.

군대는 대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전쟁으로부터 국민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유지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대의 가장 큰 목표는 '전쟁 수행'과 '전쟁억지'이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모순이며, 이것이 '전쟁에 대한 반대'가 '군대에 대한 반대'를 함의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 군대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전쟁에는 반대하면서도 군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아니, 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에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고, 그래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군대가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 하에서가 아니라도 이미 충분히 존립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었음에 대한 반증일과 동시에, 전쟁의 공포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바로 그 전쟁의 수단인 군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내부 모순의 반영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반전 담론을 추상적이고 담위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게 하는 결정적 장애물이다. 구체적 현실이 아닌 전쟁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우나,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 적극적 평화 개념의 구성

다시,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일까? 평화를 단지 전쟁이 부재한 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며 비합동적인 정의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는, '평화'가 전쟁억지라는 '국가노력의 산물'로서 수동적으로 규정된다. 핵실험을 위해 남태평양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빈부의 차이가 더 커지는 상황, 어쨌든 결과적으로 각국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그 심각한 상황이, 소극적 평화 개념을 통해서 '평화로운 시기'로 불리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 선포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성폭력의 위협에, 교통사고의 위협에, 파괴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위협에, 노동착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성해야 하는 개념은 전쟁부재(warlessness)가 아니라 평화부재(peacelessness)이다. 전쟁이 없는 시기를 평화적 시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지 못한 일상의 시기를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 평화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인간과 자연의 가치 구현과 보전 등이 보장되는 것이다.¹⁾ 평화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생명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며, 변화를 위한 전략²⁾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평화를 구성

하기 위해, 전쟁의 수단으로서 조직된 '군대'라는 존재에 대해 총체적인 분석은,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추상과 담위 차원의 문제를 구체적 수준에서 논하려는 적절한 시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전쟁을 억지하여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어지는 군대의 성격과 그 군대가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비평화적인 것들에 대한 재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2. 군대의 성격과 역할

■ 국민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수단

군대는 대개 전쟁을 치르기 위해, 혹은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유지된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과연 전쟁이 없어진다면 군대도 없어질까? 국가는, 아마도 전쟁이 없더라도 군대를 유지할 것이다. 군대가 없으면 무엇으로 국민을 통제할 것인가. 육체적 지배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지배이므로, 군대를 통한 권력이야말로 그것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것이다.

■ 민족주의/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

자국의 군대는 그 자체가 지닌 조직적 질서(상명하복 등)로 인하여 결코 모두를 위한 조직일 수 없다. 그러나 군대는 확장된 민족주의/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배일 속에서 우리의 군대가 된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군대인지 확실하지 않은 채, 그 이데올로기가 가리키는 대로 우리는 그저, 군대가 막연히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믿어버

참고

- 1) 박주식, 1996, 1. 참조
- 2) Stoen 1996, 인용

리고 만다. 그 순간, 쿠데타를 위해 동원되었던 군대나 자국민을 학살하는 역할을 맡았던 군대는 기억 저 편으로 사라진다.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국가적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기에는 이것이 한층 강화되었다. 나폴레옹의 삼비군 조직과 중앙어 사용 정책은 군국주의적 그의 통치와 맞물려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다. 군대는 지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자, 민족주의/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통해 유지되는 조직이다. 국가를 위해 초개같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개인적 이해의 확장된 형태가 국가적 이해로 대변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시민권 부여의 기준으로서의 병역

군대의 유지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병역에 대한 '신성성'의 부여이다. 그것은 군대에 가고, 전투에 참가하는 일이 대단히 신성한 임무임을 강조하며, 그 행위자로 하여금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군대에 가는가 가지 않는가'가 그 사회에서 상당한 기준으로 작동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성성은 현실적 관계에서는 종종 그 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증명하는 '시민권'의 형태로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시대, 시민들(남성들)은 중장보병으로서 도시를 지키는 전투에 참가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전투의 참가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했다³⁾. 이는 로마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노예는 전투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제국을 위해 전투하는 영광은 시민들⁴⁾에게 국한되었다.

군대화 과정에서도 군대는 시민권 부여의 기준이 되었는데, 남성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던 나라들에서 여성의 선거권 정치 투쟁에 대한 반대 이데올로기는 대개의 경우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으므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남편이 전쟁에서 죽은 여성들에 한정하여 '남편 대신'이라는 명목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는데, 국가에 봉사한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의 시민권을 부인이 대신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또, 70년대 미국에서 ERA(Equal Right Amendment) 남녀 평등 헌법 수정 조항)가 실현되려고 할 때 반대파가 이를 지지하기 위해 '남녀 평등이 되면 여자도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악질 캠페인을 폈던 일⁵⁾도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 시민권의 부여 기준을 병역으로 사고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⁶⁾

참고

- 고대 그리스 중장보병들은 무장을 자신의 재산으로 구입해야 했다. 따라서 전투에의 참여 여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행뿐 아니라 일정 정도의 재산까지도 보증했던 것이다.
- 로마 시민들은 군인으로 전투에 참가할 경우, 제국으로부터 곡식을 하사받았다.
- 무에는 처조, 내셔널리뷰와 전에서 인용
- 이 운동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 일단 여성들부터가 동의하며 평등 헌법에 반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병역을 시민권을 연결시켜,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리로서의 가래를 상징하는 이 같은 담론이 이미 여성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듯 남성 시민들에게 군대/전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부여했던 것은 군대에 갈 수 없었던 여성들을 시민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 사회적 정상성의 기준으로서의 병역

군대는 사회적 정상성의 기준이다. 군대는 일단 몇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가 실시되는 나라에서도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너무 병중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너무 키가 작거나 너무 키가 크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이들은 군대에 갈 수 없다. 심지어 학력이 낮은 자들도 군대에 갈 수 없다. 즉, 군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기준'에 맞는 인간들을 선발하는 곳이며, 따라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인정하는 그 기준 내에 자신의 육체적 특징과 자격들이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는 신병 훈련소의 입소식에서 흔히 나오는 인사말의 요지이다. 이 말은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딘

가 비정상적이고 모자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 상명하복에 충실한 노동력의 재생산

군대는 제2의 학교라고 한다. 흔히 '군대 갔다 오면 사람된다'는 말은 군대에 갔다 와야 '조직 사회의 원리를 알게 되고 실리에 눈을 뜨게 된다'는 말로 해석된다. 군대를 통해 타락하게 되는 조직사회의 원리, 그것은 상명하복이다. 복종과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군대에서 형성되는 상부에 대한 순응의 자세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실컷 맞고 나중에는 실컷 때렸다. 그러면서 조직사회의 원리를 타락하게 되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할 줄도 알고, 시킬 줄도 안다?'⁷⁾는 말처럼.

■ 외부의 적 설정을 통한 내부 불만의 무마

군대에는 '주적'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주적의 설정을 군대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적 없이는 전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한의 보수 언론은 북한을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하려는 괴뢰 집단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고, 헐리웃은 미국 군사주의의 '주적'을 제공하는 가장 충실한 대리인이었다.⁸⁾

참고

- 우리 안의 피시즘 中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박노자)'에서 재인용
- 헐리웃은 양 대전 당시와 직후 독일과 일본을, 냉전시대에는 소련, 동구권이 몰락한 뒤에는 사담 후세인, 카스트로, 김일성, 밀로세비치, 탈레반 등 지역 반항자들을 성공적으로 악마화시켜왔다. 이러한 주적의 재생산을 통해 내면화된 증오와 적대적식은 현실에서 겹포전, 이라크 침공, 코소보 공습, 아프간 전쟁 등이 이루어졌을 때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언제나 외부의 적을 들어 무마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의 성숙을 '남침의 위협'이라는 말 한마디로 '괴뢰 도당의 사주에 의한 반란'으로 몰아붙인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주적 개념은 일상적인 적대 의식을 조장하는 데도 한 몫을 한다. 이러한 적대 의식은 모든 것을 흑백 논리 속으로 밀어 넣는다. '아군이 아니면 적'이라는 위험한 논리는, 군대에서부터 시작된 주적 개념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환경 파괴 및 자원 분배의 불평등

전쟁이나 군사 훈련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⁹⁾. 또한 전쟁 무기 개발을 위해 엄청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국가의 예산은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군사작전에 불공평하게 분배된다. 자본가들은 국가와 연계된 군수산업, 군납품 생산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사회 국민층에 대한 복지 예산은 군사비 지출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3. 군사주의와 여성

'교과서가 없어? 전쟁터에 나가는 놀이 충을 두고 와? 완전히 군기가 빠졌구먼, 방과 후 단체기합! 억울해? 불

참고

9) 대표적으로 남태평양지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실험지로 사용되어 생태학적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예를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1946년 이후 300회 이상의 핵 실험이 실시되었다.

10) 조선일보, 2001. 5. 12. 38면 '군사용어는 이제 그만'

만이야? 너희들이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란 것 모르냐?'¹⁰⁾ 학교에 다닐 때 지겹게 들던 말이다. 이 말처럼 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군사화되어 있고,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말들이 있을까? 학교 마저도 군대처럼 재편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군사화에 대한 증거이다. '군사화'란 민간부분이 군사적 영역으로 이전 혹은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 사회의 군사화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전체 공적지출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배당되는 지출의 비율, 정치적이고 경제적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적 방법을 논하거나 실제로 적용 시키느냐의 여부, 군사 용어와 군대 문화의 일상화 정도 등이 있다. 이 지표로 분석하면 우리 나라는 대단한 수준으로 군사화된 사회이다.

그렇다면 군사화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어떤 것일까? 신다아 인로는 집단적 폭력을 가능케 하고 그러한 집단이 유지되고 힘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 말하는 전사로서의 남자다움, 그리고 그런 남자다움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여자다움의 사회적 형성과 함께 이런 집단의 유지 보존을 위한 훈련과 단일적 위계질서, 역할분업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산넉적 장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사주의를 이해했다. 그녀의 분석에 의해 군사주의와 여성의 관계를 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련관다. 남자가 강해야 하고 가족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힘의 논리에 적응하여 성공을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은 특별히 군대를 통해 생겨난 관념은 아니지만, 군대 경험을 통하여 보다 집단적이고 강하게 재학습하는 것이다. 군대의 존재는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성역할을 더욱 고정불변의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군대를 통해 새로운 성역할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 군대와 여성, 군사주의와 여성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 여성, 군사주의의 희생자

일반 여성들은 군사주의의 희생자이다. 경제적으로 '빈곤의 여성화'는 군사부분 지출의 확대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군비 확대는 사회복지 부분의 지출을 희생시키는데, 여기에서 여성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군비문제 전문가인 루스 시바드는 그래서 점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군사주의는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성역할을 고착화한다. 남성에게 수호자로서의 의미를 지우며,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 약한 존재로 형상화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군대에서 복무 중인 남성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서 인식하도록 하

는 관습도 문제이다. 언제나 성매매 업소들은 군기지 근처에 형성되고, 여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다. 게다가 군대란 남성들만의 성역이라는 생각이 자리잡혀 남성들간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여성들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과 행위가 규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군대를 통해 일상적 폭력을 경험하게 된 남성들은 제대 이후, 자신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것이 만성적인 가정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들은 이렇게, 군대에 가거나 참전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주의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나타난다.

■ 군사주의의 매개자

대개 군사주의의 매개자라고 하면 남성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직접 그 문화와 군생활을 경험한 남성들이 매개하는 역할이 훨씬 컸지만, 여성들 역시 그저 희생자로서만 살아왔던 것은 아니다.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여성들은 그 자신이 군사주의의 매개자가 되기도 한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성역할 구분과 병역을 통해 얻게 되는 시민권, 평등권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1792년 3월 8일 Pauline Leon¹¹⁾은 입법 의회의 방청석 앞으로 나와 '자녀권'에 의거해 여성도 국민방위군의 한 부대로 편성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300명이 넘는

참고

11) 프랑스 혁명 시 코르도리에르 클럽에서 활동한 여성 투사

12) 여성의 역사 4 상 중 '전환점으로서의 프랑스 혁명(엘리자베트 G. 솔러지예프스키)'에서 발췌 인용

파리 토박이 여성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청원서를 낭독했다. 하지만 의장은 '남녀에게는 제각기 다른 임무가 주어졌으니 자연의 질서를 뒤엎지 말자'며 이 의견을 가졌다. 여성들의 이 같은 요구를 단순히 혁명정부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로만 볼 수는 없다. 이는 권력과 시민권, 그리고 여성의 평등권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¹²⁾ 이런 예는 근래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91년 케르시아만 전쟁(걸프전)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 최대 여성 단체인 NOW(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전미여성기구)는 여성 병사의 전투 참가 해금을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요구했다¹³⁾ 것이다. 이 예들은 여성들이 평등권을 얻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 보여준다.

군사주의 자체가 여성들에게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평등권과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참전이나 여성 징병에 찬성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어떠한 논리 하에서 참전을 요구했더라 할지라도, 이는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사화된 사회에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논리를 내면화한 것으

로, 따라서 군사주의 문화의 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어쨌든 여성들은 군대가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이고, 그 사회적 권력, 시민권을 누리기 위해 '자신들도 군대에 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했던 것이다.

4. 군사주의를 넘어서기 위하여

여성은 흔히 평화를 사랑한다고 얘기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곡 '뤼시스틀라테'에서 이러한 여성의 성격을 '남성들의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섹스 스트라이크를 벌이는 여성들'이라는 재미난 소재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여성이 남성들보다 평화를 좋아한다고 얘기되는가? 브록 윌슨은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은 주로 평화적인 가치를 위해, 남성은 주로 전쟁을 위해서 교육된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인용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관계 지향적이므로 당연히 더 평화로울 것이라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화를 사랑

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결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화롭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을 계속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게 한다. 그렇게 태어났으므로, 혹은 그렇게 길러졌으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화롭다는 이들의 주장은,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투쟁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글의 초두에 제기했던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자. 평화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를 이렇게 정의할 때, 여성과 평화를 동치시키는 본질주의적 젠더 접근을 극복할 때, 여성이 다만 평화를 사랑하도록 태어났거나 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선포할 때, 이는 기존의 권력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변혁의지로 표현될 수 있다. 나아가 여성에 의한 적극적 평화의 모색은 남성우위의 사회 질서에 대한 배반과 전복을 포함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힘 갖추기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한창 제기되고 있는 징병제 폐지 투쟁을 살펴보자. 징병제 폐지는 근본적 대안인가? 아니다. 그것은 군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투쟁은 급진적인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투쟁이다. 누구나 국가에서 부르면 군대에 달려가야 한다는 그 사회적 상식에 도전하고, 징집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명령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징집의 대상은 아니나, 군대

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희생자이다. 징병제는 그 자체로 징집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되는 고정된 성역할을 극도로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그저 보호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음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무엇보다 징병제는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무언가 다른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화시킨다.

군사주의의 희생자인 여성들은, 스스로 군사주의의 매개자가 되기를 원할 정도로 군사주의가 여성에게 억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 여성들이 군사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때이다. 군사주의를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구조인 군대와, 그 군대를 일반 사회로부터 결코 분리시킬 수 없게 만드는 징병제에 대한 도전을 감행해야 할 때이다. 적극적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군대가 만들어내는 일상적 전쟁을 참을 수 없기에!



참고

- 1) 우에는 치즈코, '내셔널리뷰'와 '젠더'에서 발해 인용. 걸프전 이전까지도 여성의 입대는 허용되었으나 여성의 직접적인 참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 2)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전 요구가 성역할 고정화를 타파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여성의 전투 참가를 '국인'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성별 체계를 해체해 병사의 남성으로서의 자기 정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선에 파병된 젊은 병사에게 '당신 옆에 여성 병사가 동료로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라고 묻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 젊은 병사는 곤혹감을 나타내며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고향의 아내나 연인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배웠는데 보호받는 당사자인 아내나 연인이 전선에 나타난다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예는 여성 참전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그들의 고정된 성관념을 해체하는 데 있어)을 잘 보여준다.



허구적 순결 이데올로기와 정조관념으로 점철된 성문화를 바탕으로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양상들에 문제제기하려 한다.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왜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전가되는가...?
그리고 피해자인 여를 정조를 잃은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며 이차적인 가해를 행하는 사회의 그릇된 시선들을 말하고자 한다.

반성폭력 영화제

미돈나 진실혹은 대담

301.302

스위티

장소: 늦은 8시30분 2차 민주광장

[사전판 - 문화제 전야제]

노천 카페

2차 공장에서 시원한 맥주와 향긋한 차를 즐기면서 오일의 볼행기와 비람을 즐기구요~~~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해 떨어지면 영화도 함께 봐요!!

언제 : 5월 29일 늦은 4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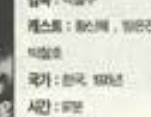
아외 영화제 - 허구적 순결이데올로기여~ 떠나라!!!

순결·정조의 관념으로 성폭력을 여성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양상을 문제 삼고 여성의 진정한 섹슈얼리티를 말하고자 한다.

언제 : 5월 29일 늦은 8시 30분

어디서 : 2차 민주광장 앞

[프로그램]

마돈나 진실 속은 대담	30, 302	스윙티
 원제 Madonna: Truth or Dare 감독 알렉스 카사노반 배우 마돈나, 워렌 비티, 신디로 번저리, 알 렉스 카사노반 국가 미국, 1991년 시간 118분 장르 다큐멘터리	 감독 빅탈루 캐스팅 앤디 워홀, 마이클 잭슨, 브루스 스프링스틴 국가 미국, 1982년 시간 90분 장르 다큐, 공포, 여행	 원제 Swingty 감독 제임스 캠퍼 배우 제임스 캠퍼, 데이비드 카펜, 폴 스톤, 폴 라디크스 국가 미국, 1988년 시간 100분 장르 다큐, 여행

[본판 - 문화제 뒷풀이 영화제]

아외 영화제 - 성폭력에 반기를 들다!!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그린 작품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이고 그릇된 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언제 : 5월 30일 문화제 4부

어디서 : 2차 민주광장

[프로그램]

도움주신 분들

1600년의 돈돈당,
대식당

공복하다 출출할 때 달려오는 곳,
도서관 식당

교재는 여기서 구입하세요
국내 여행

눈으로 읽는다, 대식당 옆
국내 여행

현직의 영어 달콤한 영어를
공부하세요

다양한 메뉴, 특별한 점심
회사 식당

충북에서 먹거리 먹거리 갈래? 어, 그래
북지리 일일집

북지리의 좋은 나라
회사 북지리

맛있는 빵이 먹고 싶은데
공부하는 베이커리

남자는 안되지만 장식금은 벌~ 할 수 있어요
한정음식

책도 읽고 따뜻한 영어도 배우는 곳
읽은 책집

컴퓨터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을 알려주어
코스모스 컴퓨터

월간도 외국어, 배달도 되요
도림문구

문과과에도 장점을 가져 주세요
하이엔드

컴퓨터 판매/수리/주방기기/오디오 판매
네트워크 설치/수리
011-9717-7657 / 675-7180
신라컴퓨터

고급적인 디자인과 장식을 만날 수 있는 곳
돌진

자식나무를 타고 날아와
자식나무

즐거움과 맛을 한다면 집...
한화빌딩

특별한 맛을 낼 필수 코스!
한정음식

일단 한번 외판소도 보고 싶어할걸...
분리이동 베이커리
하루드라이

맛있는 김밥, 돈돈한 허균
김밥 한 줄 이상 두 줄

북지리나 배민한국
아름답게

특별한 선물,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
특별한 선물

북지리 선지들
집단전

즐거움, 기분 좋게 하는 곳
Happy Time

특별한 음식이 들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한화빌딩

고급적인 디자인과 장식을 만날 수 있는 곳
한화빌딩

한화빌딩 베이커리, 이집트 요리도 가능합니다
금요일 살롱

특별한 선물,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
오빠 (OGEPO)

새로운 음식, 맛있게 먹어주세요.
한화빌딩

오늘 저녁에 어떤 기분 좋은 일까요?
제안 (JANE)

특별한 맛을 선물로 보내고 싶다면
금요일 베이커리

특별한 음식, 맛있게 먹어주세요.
한화빌딩

맛있는 음식과 특별한 음식
한화빌딩

그냥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화빌딩입니다.
한화빌딩

아름~이~이~이~이~이~이~
아름 (YAHOO)

특별한 음식, 맛있게 먹어주세요.
한화빌딩 (GERMMA)

특별한 음식, 맛있게 먹어주세요.
한화빌딩 676-3508

한화빌딩

한화빌딩

한화빌딩

한화빌딩 (JAHOO)

한화빌딩 (SOMN)

한화빌딩

한화빌딩

한화빌딩 (EDNA)

한화빌딩

한화빌딩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반성폭력 문화제 자료집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만든사람들

발행일: 2002. 5

발행인: 스/크/레/지 총여학생회

인쇄: 통보인쇄

디자인: 소란

반성폭력 자료집

'Nonfiction My body is a Battleground'

5·30 反성폭력 문화제 프로그램

1부 Fiction 그건 폭력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反성폭력여성주의퍼포먼스
기억하는고통, 성폭력퍼포먼스
우리학교락밴드씨커스
늦은 5시부터 2차 민주광장

2부 Non Fiction 그건 폭력이야, 그럴 순 없어

우리학교성폭력사건,그이후
싸이코드라마
여성합합그룹따따따
국악대反성폭력창가
하를베리핀
늦은 6시부터 2차 민주광장

3부 Reality 혹은 Realize 이해가 아닌 나의 실재

여성해방연대
락밴드
2002反성폭력운동!선언
성폭력강물아작대
늦은 8시까지 2차 민주광장

4부 Action 성폭력에 반기를 들다

反성폭력 영화제2
피고인
늦은 8시 30분부터 2차민주광장